

인구소멸시대 공공도서관의 과제와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llenges and Role Changes of Public Libraries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노 영 희 (Younghee Noh)*

곽 승 진 (Seung-Jin Kwak)**

목 차

- | | |
|---|--------------------------------|
| 1. 서 론 | 5. 지방소멸 대응 사례 분석과 도서관의 역할변화 모색 |
| 2. 선행 연구 | 6. 지방소멸 시대 공공도서관의 대응 전략 |
| 3. 연구설계 | 7. 결론 및 제언 |
| 4. 인구 리스크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과 도서관 적용가능성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원의 확보 측면에서 도서관이 역할 변화를 통해 지역 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리스크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 및 도서관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세워진 공공도서관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도서관이 지방 소멸 대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소멸 시대 공공도서관의 대응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전략은, 첫째,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적 인프라로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 소멸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고령화 대응 및 외부인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특화 도서관을 지역별로 구축하고, 이러한 도서관이 브랜드가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섯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이동도서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도서관은 지역 문제 해결의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 및 활동가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거버넌스 체계로서 강화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ow libraries can secure their status as key institutions in addressing regional depopulation by transforming their roles in terms of securing cultural resources. To achieve this, the study examined the laws and policies designed to solve social issues related to population risks and explored the applicability of libraries. It also analyzed specific cases of public libraries established in regions facing the threat of depopulation to identify the positive impacts libraries can have in addressing regional extin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strategic responses for public libraries in the era of regional depopulation were derived. The specific strategie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ibraries should be established as cultural infrastructures that revitalize the cultural, economic, and social vitality of the region. Second, libraries should provide services to mitigate the inequality of opportunities caused by regional depopulation. Third, they should operate programs that address aging and attract external populations to help stimulate the local economy. Fourth, differentiated and specialized libraries that reflect the identity of each region should be built, with the aim of branding these libraries to contribute to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Fifth, mobile librarie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to realize the vision of a livable regional era. Lastly, libraries should serve as spaces for solving local issues by reinforcing governance systems that focus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activists in addressing community challenges.

키워드: 인구소멸, 지방소멸, 사회문제, 공공도서관, 역할변화

Population Decline, Regional Depopulation, Social Issues, Public Libraries, Role Changes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제1저자)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kwak@cnu.ac.kr / ISNI 0000 0004 6812 0586)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4년 10월 21일 최초심사일자: 2024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11월 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4): 5-27, 2024. <http://dx.doi.org/10.4275/KSLIS.2024.58.4.005>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한국은 새로운 인구 폭탄에 직면하였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을 '인구 소멸 국가' 제 1호로 지목하였다. 콜먼 교수는 한국의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더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Elon Musk) 역시 한국이 향후 3세대 내에 인구 붕괴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가 지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감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2020년 시작된 이래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인구의 자연감소가 급격하게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합계 출산율은 2019년에 0.92명으로 유지되었으나, 2020년에 0.8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며 하락세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출산율은 매년 0.03명씩 감소하여 2021년에는 0.81명, 2022년에는 0.78명으로 줄었다. 2023년에는 감소 폭이 두 배로 확대되어 0.06명 하락, 2024년에는 0.7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출산율의 큰 폭 감소는 2020년부터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50.2%)가 비수도권 인구(49.8%)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710만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고령화세대로 진입을 했다(기획재정부, 2021).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지역소

멸, 초고령사회 등 3대 인구리스크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소멸위기에 해당하는 지역의 빠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멸 고위험 지역이 2017년 12곳에서 2047년에 157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본의 増田 寛也(2014/2015)가 저서 『지방소멸』에서 향후 30년 내에 대도시만이 생존하게 되는 '극점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는 지방에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도 문제이지만 그나마 있는 인구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는 50.4%, 비수도권의 인구는 49.6%로 2020년과 비교해 1년 사이에 그 차이가 4%에서 8%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 원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질적 격차 심화로 볼 수 있다.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첨단산업의 수도권의 편중, 다양한 고품질의 문화인프라 등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반면, 일자리 감소, 의료서비스 부재, 교육서비스의 부재, 교통인프라 취약, 문화자원의 다양성과 수의 부족 등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인구 지진(Agequake)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인구감소는 우리사회의 근간이 되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2023년 70.5%, 2023년 66.0%, 2070년 46.1%)로 이어져(통계청, 2023) 노동공급 감소, 성장 잠재력 약화, 사회경제시스템의 불균형, 부양부담증가, 요양 및 돌봄 부담 증가, 수도권 혼잡비용 증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역소멸의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 쏠림이며, 수도권 쏠림의 원인 중 하나는 문화자원의 다양성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일자리 대안이 아닌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지방 구석구석에 배치하고, 문화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병수(2023) 전주시도서관본부장은 소멸위기 도시를 살리는 해법은 도서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용훈(2024)도 도서관 통신 컬럼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여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이 다양한 역할변화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2. 선행 연구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대한민국 행정구역 중 원주민 및 거주자가 감소하여 인구가 소멸되어 사실상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통계청, 2023). 우리나라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서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발굴하며, 지역 특화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내부적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높이고, 외부적으

로 지역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소멸과 함께 지역소멸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특히 농어촌 주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심에서의 문화복합시설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을 위한 기관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도 내놓고 있는데, '도서관 중심 지역문화 클러스터 및 동아리 조성' 사업의 추진과제 내의 실행과제로 '지역소멸 대응 등 도서관 중심의 지역문화 클러스터 조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 외 인구감소지역 지정 도서관 중심 문화기반의 확충(『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 청년 인구 유치 및 고령층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조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촉진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주민간 소통 강화 및 이주 인구 유입 촉진 등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김신영과 차성중(2022)은 인구감소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 인식조사를 했는데, 행정안전부(2021)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구감소지역은 최근 10년 동안 신규 도서관 건립 지원이 없었으며 도서관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특히 도서관 수, 1개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방문 이용자 수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소멸의 대응전략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따라서 보고서, 컬럼, 이슈리포트 등에서 지방소멸 시대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정영호(2023) 도쿄 특과원은 지방소멸을 막는 힘은 문화의 힘이라 주장하면서 경제효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도서관을 소개하고 있다. 인구 5만명의 일본 다케오시는 2013년 민간 기업인 컬처컨비니언스클럽(CCC)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한 후, 문화적 및 경제적 효과를 크게 보았다. 도서관 겸 서점으로 재단장된 다케오도서관은 연간 방문객 수가 25만 명에서 92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지역 숙박시설 가동률과 음식점 매출도 각각 2배와 1.2배 상승시켰다. 이로 인해 다케오시는 36억 엔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록했다. 이는 도서관이 지역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다. 지리학자로서 채지민(2024)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활용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수도권이 일자리뿐 아니라 문화 자원의 독점으로 지방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지역 중심의 문화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정형화된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이 아닌,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모든 세대를 끌어들이 수 있는 문화, 예술, 교육이 융합된 매력적인 공간으로 탄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로컬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생생한 경험을 통한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테마가 있는 주제로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가치와 경험을 공

유할 수 있는 문화 감성을 즐기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인제 기적의 도서관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위의 연구내용들의 시사점은 첫째,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외부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다. 둘째, 농어촌 지역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의 매개체로서 도서관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은 단순한 책의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 대응 전략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연구, 도서관이 도시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성공 사례에 대한 연구, 그리고 농어촌 및 비수도권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방안과 이를 통한 지역 내 문화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지역소멸과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역할강화 방안 모색관련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설계

3.1 연구질문

이와 관련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으며, 연구과정을 통해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 RQ 1. 도서관은 지역소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도서관이 인구 감소와 경제 쇠퇴에 직면한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소멸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RQ 2. 도서관의 도시재생 역할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 도서관이 도시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성공 사례는 있는가?
- RQ 3. 농어촌 지역에서 도서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농어촌 및 비수도권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방안과 이를 통한 문화 격차 해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 RQ 4. 도서관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자부심과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RQ 5.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도서관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적, 경제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3.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주로 문헌분석과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 및 정책 자료를 통해 도서관의 지역소멸 대응 역할을 조사하였다.

특히 도서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문화 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자료를 통해 도서관의 지역소멸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서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문화 격차 해소에 미친 영향을 다룬 학술 논문 및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특히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성공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다룬 문헌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사례연구로서, 일본 다케오 도서관, 인제 기적의 도서관 등 실제 운영 사례에 관한 기사, 보고서 및 학술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효과와 전략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례 연구는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된 사례로 한정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외부 방문객 유치, 문화적 영향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인 사례로 채택하였다. 둘째, 각 도서관의 운영 방침, 프로그램, 시설 운영 방식, 방문객 수 증가, 경제적 및 문화적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는 도서관의 공식 보고서, 정부 통계, 언론 보도를 통해 수집되었다. 셋째, 각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도서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역할과 성공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4. 인구 리스크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과 도서관 적용가능성

인구 리스크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도서관의 적용가능성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법률과 정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 법률과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도서관이 이러한 사회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서관이 이러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법률과 정책을 조사하였다. 관련 법률과 정책이 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 조사함으로써, 도서관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공포: 2022.6.10., 시행: 2023.1.1.)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문화기반 확충,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등이 있다. 특히, 문화기반의 확충과 관련하여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문화 및 교육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서관은 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

민 간 소통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으로 기능함으로써 인구 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법에서 제공되는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다. 둘째, 도서관은 지역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장소로서, 지역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도서관은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과 인근 상권이 연계되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넷째, 법적 지원을 기반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문화적·교육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비도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시설 증축을 가능하게 하는 토지구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지방 생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여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은 이 법을 활용하여 비도시 지역에서 중요한 문화적·사회적 허브로서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는, 첫째, 도서관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토지구제 완화를 통해 도서관과 연계된 문화 복합 시설이나 상업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도서관을 지역 관광 명소나 문화유산과 연계해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보존하고 홍보할 수 있다. 넷째, 지역 생산시설이나 농촌 프로그램과 연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3 도서관법 시행령의 인구감소지역 공공도서관 등록요건 완화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도 인구감소지역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등록률 향상을 위한 법이 개정되었다.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2 제1호)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도서관 운영 요건이 완화되었다.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기존에는 4명 이상의 사서를 요구하던 등록 요건이 1

명으로 완화되었고, 작은도서관은 2개 도서관에 사서 1명 이상을 두는 조건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도서관 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 개정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비록 한시적이지만(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이러한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 많은 도서관이 등록됨으로써 지역의 문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지역 주민들은 도서관을 통해 보다 쉽게 문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교류가 촉진되며, 이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은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학습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4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과 폐교 활용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은

〈표 1〉 도서관법 시행령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개정 내용

구분	내용
개정 전	- 국공립 공공도서관(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도서관 포함)은 사서 4명 이상,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사서 1명 이상을 갖추어야 등록 가능
개정 후	-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은 사서 1명 이상, 작은도서관은 2개 도서관에 사서 1명 이상을 두면 등록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기대효과	- 인구감소지역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등록률 향상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인구 유인 시설로 활용하고, 병원 및 체육시설 건설 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 방안은 폐교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 완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방 도시의 재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규제특례 확대 정책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에서 폐교를 도서관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더 많은 문화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사서 인력 요건의 완화와 같은 규제특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서관 등록과 운영이 용이해지면서, 더 많은 도서관이 설립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 도서관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 교육, 복지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첫째, 폐교를 도서관 겸 문화센터로 변환하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 예술 전시,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둘째, 도서관 이외에도 카페, 공동 작업실, 소규모 강연장 등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폐교를 도서관으로 전환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5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고향올래 사업은 주민등록상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생활인구는 시·군·구에서 1일 동안 머문 시간이 3시간 이상이고, 이를 월 1회 이상 반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 사업에서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① 두 지역 살이, ② 로컬 벤처, ③ 로컬 유학, ④ 위케이션(Workation), ⑤ 은퇴자마을의 다섯 가지 유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의 위케이션(Workation) 프로그램은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서관은 체류형 인구를 유치하려는 지자체에 원격 근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프로그램, 독서, 연구, 학습을 위한 공간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위케이션 참여자들은 일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도서관에서 누릴 수 있다.

도서관이 위케이션(Workation) 공간으로 적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도서관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며, 숙박시설과 교통이 인접해 있다. 둘째, 원격 근무자들에게 적합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며, 고속 인터넷과 전자 자료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원격 근무에 필요한 필수 도구들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도서관 내 다양한 정보와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업무나 개인 프로젝트 진행에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나 지역 특화 행사에 참여하면서 위케이션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다.

즉, 도서관은 원격 근무 공간 제공, 인터넷 및 전자 자료 지원, 네트워킹 이벤트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 회의 및 협업 공간 제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위케이션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4.6 시사점

위 내용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있어 도서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 및 정책의 변화로 도서관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폐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대출의 기능을 넘어서, 지역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위케이션 프로그램과 같은 창의적인 활용 방안을 통해 도서관이 원격 근무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도서관은 이러한 다각적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5. 지방소멸 대응 사례 분석과 도서관의 역할변화 모색

이번 장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논의하

고,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 세워진 공공도서관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도서관이 지방소멸 문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도출하며, 도서관이 지역사회 활성화와 문화적 자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서관이 단순히 자료 제공을 넘어 지역의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과, 지역 주민 및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였다.

5.1 다케오시립도서관의 문화적인 힘

지방을 살리는 문화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은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경제 쇠퇴로 인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최고의 대책은 일자리 제공이지만, 일본의 몇몇 도서관들은 문화적 힘도 쇠퇴를 늦추는 중요한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소도시 다케오의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로, 2013년 민간 기업인 컬처컨비니언스클럽(CCC)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한 후 도서관을 서점과 결합한 공간으로 재단장했다.

다케오시립도서관은 이러한 변화로 2011년 25만 명이던 방문객 수가 2013년에는 92만 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지역 숙박시설 가동률이 2배, 음식점 매출이 1.2배 증가했으며, 2년 동안 약 36억 엔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현재 이 도서관은 연간 평균 100만 명이 방문하는 마을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케오시립도서관이 설정한 주요 컨셉은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도서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도서관, 여러 가지 체험이 가능한 도서관이었다.

다케오시립도서관의 성공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음료를 가지고 도서관에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잔잔한 음악을 제공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휴관일을 폐지하고 개관 시간을 늦은 밤까지 연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편안한 의자를 배치하고 책을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서 배치를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셋째, 도서관의 기능을 확장하여 단순히 책을 읽거나 대출하는 공간을 넘어, 친구들과의 대화 및 교류가 가능한 사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무르기 편한 체류 환경을 제공하여, 도서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 제공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머무르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만든 주요 요소로 평가된다.

5.2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설립된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은 일본에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시카와 현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막대한 자

금을 투입해 도서관을 건립했으며, 이는 도서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를 늦추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1,43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된 이 도서관은 개장 후 5개월 만에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숙박 시설 가동률 상승과 음식점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사례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대출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랜드마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일런트 룸'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장소를 넘어, 이용자들이 시간을 보내는 '체재형 도서관'으로 설계되었다. 500석 규모의 공간에는 100종류 이상의 의자와 소파가 비치되어 있으며, 이는 도서관 방문자들의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서관 자체가 견학 코스로도 주목받게 만들었다. 특히, "도서관에 오래 머무르게 하려면 사람들이 접촉하는 가구가 중요하다"는 철학에 따라, 책상과 의자에 세심한 공을 들였다. 셋째, 이 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 분류 방식을 탈피하고, 철학, 역사, 문학 등의 주제 대신 12개의 테마로 책을 분류하여 진열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우연히 새로운 책을 발견하고 '세렌디피티(Serendipity)'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접근은 방

문자들이 도서관에서 예기치 못한 지적 탐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을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의 성공은 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게 한다.

5.3 위케이션의 성지가 된 우미미라이도서관

우미미라이도서관은 독특한 건축 양식과 편안한 환경으로 가나자와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최근에는 '위케이션'의 성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도서관은 케이크 상자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세로 45m, 높이 19m의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독특한 외관 덕분에 우미미라이도서관은 단순히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 모두에게 특별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우미미라이도서관이 위케이션의 성지로 떠오른 이유는 그만의 독창적인 건축 양식과 쾌적한 공간, 그리고 장시간 머무르며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접근성이 뛰어나 장기 체류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위케이션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업무를 보면서 동시에 가나자와의 문화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 덕분에 우미미라이도서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5.4 주말마다 외지인이 몰려드는 관광지가 된 구름 위 도서관(雲の上の図書館)

3,500명의 주민이 사는 산골 마을 유스하라초는 '구름 위 도서관(雲の上の図書館)' 덕분에 주말마다 외지인들이 몰려드는 인기 관광지가 되었다. 2017년에 개관한 고치(高知)현 유스하라초의 '구름 위 도서관'은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구마 겐고(隈研吾)가 디자인하였으며, 내부 기둥과 천장은 지역의 목재로 꾸며져 있어 마치 숲 속에 있는 듯한 자연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

이 도서관은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말마다 많은 외지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을은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마을의 빈집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지원책과 연계되어 20~30대 청년층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름 위 도서관'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목재를 활용하여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독특한 건축 디자인이다. 둘째,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관광지로서 작은 산골 마을을 주말마다 사람들로 붐비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점이다. 셋째, 빈집을 보수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과 맞물려 청년층의 이주를 촉진하며, 인구 유입과 지역 재생에 기여한 것이다. 이 사례는 도서관이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5 인구보다 방문이 많은 인제 기적의 도서관

강원도 인제군 인구 3만 명 규모의 지역에 2023년 6월 개관한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개관 이후 약 5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이 도서관은 기존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과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문화 취약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인제군의 로컬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테마형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이 도서관이 인구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게 된 주요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창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도서관은 음악실, 미술실, 미디어실 등의 공간을 현장 예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통해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둘째, 지역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인 점이다. 인제 주민들이 더 이상 '문화시설'을 찾기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할 필요 없이,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문화 경험을 즐길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했다. 셋째,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농촌에서는 드문 스터디 카페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 공간은 도서관을 공부와 학습, 소통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했다. 또한, 인근 로컬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즐길 거리와 테마를 제공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이 도서관은 단순한 책 대출 공간을 넘어, 문화적 감성

을 공유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5.6 도서관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도서관의 성공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도출, 그리고 이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적용하는 것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지방소멸 시대에 도서관 사례들이 제시하는 시사점과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에게 체류하기 쉬운 환경 제공이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거나 대출하는 공간을 넘어서,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확장된 점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무르며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서관은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둘째, 혁신적인 접근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이다. 전통적인 도서관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대화하며 책을 볼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단순한 책 대출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중심 커뮤니티로 재구성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하였다.

셋째, 새로운 근무 형태에 적합한 환경 제공이다. 특히 워케이션(Workation)과 같은 새로운 근무 형태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한 사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여한 성공적인 모델이다. 우미미라이도서관과 같이 자연 속에서 힐링과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은 지역 외부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넷째, 힐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이다. 구름 위 도서관의 사례처럼 도서관은 자연과 결합된 건축적 매력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말마다 외지인들이 쉬을 위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마을의 빈집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과 맞물려 20~30대 청년층의 이주를 촉진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힐링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로컬 관광자원과의 연계이다. 도서관이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되어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테마가 있는 주제를 통해 모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점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도서관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서관이 단순한 책 대출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성공 요인들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적용될 수 있으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6. 지방소멸 시대 공공도서관의 대응 전략

6.1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적 인프라로서 도서관 건립

지방소멸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문화적 전략이 될 수 있다. 도서관은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시설로, 다양한 문화 활동과 융합적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이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문화적 복지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복합문화시설로서의 도서관 건립이 지역 소멸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역 간 접근성 격차는 매우 크다. 도서관 접근성은 특별시·광역시에서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울은 도보 14분 내에 도서관 접근이 가능하지만, 부산은 32분, 강원도는 122분, 경북은 113분, 전남은 100분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격차는 지방 주민들의 문화적 기회와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도서관 건립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은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에 부족한 문화 복지를 확충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소멸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도서관 건립을 통한 성공적

인 지역 재생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성공한 사례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영국 버밍엄도서관 역시 인구 및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중심 도시재생과 문화도시 사업을 연계한 명품 도서관을 지방에 건립할 필요가 있다.

6.2 유휴 부지 및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 건립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유휴 부지나 폐교를 활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이러한 유휴 자산을 복합문화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자원의 순환적 활용과 동시에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와 함께 어린이, 청소년 인구도 줄어들면서 폐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폐교된 학교는 3,955건에 이르며, 이 중 2,609건은 매각되었고, 979건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367건은 아직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미활용 폐교는 자원순환과 순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폐교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건립은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을 통해 지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폐교가 어떻

게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도심 폐교를 활용한 복합독서문화공간인 마산 지혜의바다도서관, 시골마을의 폐교를 재활용한 책마을 해리, 전국 최초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으로 재탄생한 대구 2.28기념학생도서관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노영희 외, 2024). 이와 같은 사례들은 단순한 도서관 설립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자원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폐교 활용 방안은 자원 재활용의 차원을 넘어 지방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다.

6.3 지방소멸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서비스

도서관은 문화 취약지역,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서관은 공연, 강연,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며,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화 활동은 주민들이 외부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로 인해 도서관은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지역(소멸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는 지방소멸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이다. 사회적 약자나 도서관과의 물리적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책배달 서비스는 정보 취약계층에게 독서 환경을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논산시의 '책 나들이' 프로그램이나 제천시의 '희망도서 배달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를 배달하여 독서 기회를 증진시키는 사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독서 생활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4 고령화 대응 및 외부인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도서관 위케이션 프로그램은 '워크(일)'와 '베케이션(휴가)'을 결합하여, 도서관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귀농', '청년 교류', '로컬 이야기 발굴'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위케이션 프로그램은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책의 도시'로 브랜딩하면서,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독특한 도서관을 개관하고, 다양한 독립출판 문화행사와 전주책대전 같은 국제적인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주시의 위케이션 프로그램은 전주

만의 문화적 매력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로, 방문자들에게 도서관에서의 독특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여 일과 휴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성공 요인은 지역 문화와 결합한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이 새로운 근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과 일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든 점에 있다.

도서관이 문화 취약지역이나 소멸 위기 지역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 활동은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 내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은 북토크, 음악회, 강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인구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 수성구 용학도서관의 사례는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좋은 예다. 이 도서관에서는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의 공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노년층 인구를 위한 세대 간 공감 형성은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프로그램 외에도 노후된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을 활용해 지역 내 '세대공감센터'를 조성하고, 50대 및 60대 신중년과 은퇴 세대를 대상으로 '함께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세대의 지식인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강연과 교육을 진행하며,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

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세대 간 소통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6.5 지역 정체성을 담은 도서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되고 특화된 도서관을 브랜드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특화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브랜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 도서관의 브랜드화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플랫폼이 된다.

지역별로 특화된 도서관 브랜드화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주제를 설정하고, 해당 주제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예를 들어, 고양시 도서관의 경우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를 주제로 세계 그림책

과 향토 문화를 연결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은 도서관을 단순한 자료 제공 공간이 아닌, 지역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도서관을 지역 내 핵심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경기 도서관은 확장된 문화 공유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지역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한다. 경기 도서관의 사례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이 도서관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접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그림 1〉 참조).

도서관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마을 기록화는 지역문화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지역 소멸이나 변형으로 인해 소중한 민간 기록물들이 급격히 소실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그림 1〉 도서관 브랜딩 사례

이러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기록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그림 2〉 참조).

또한, 도서관은 지역의 문화 매개자들과 협력하여 마을 이야기의 지역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문화 큐레이터, 지역 인문학자, 시민 구술채록단, 로컬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문화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지역의 정체

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한다. 또한, 도서관은 스토리텔링 우수사례 공유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이야기를 홍보하고, 문화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지역 브랜드를 형성하여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2〉 도서관 기반 지역아카이브 구축·운영 사례



〈그림 3〉 지역 스토리텔링 브랜드화 사례

6.6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동도서관

이동도서관은 신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 도서관 로봇을 운영 중인데, 이 로봇은 위성항법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장애물 감지 라이다(LiDAR) 센서를 탑재하여 자율적으로 운행된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 심야 이동도서관 운영 사례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맞춘 운영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동도서관이 신기술과 접목된 혁신적 방식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4〉 참조).

이동도서관이 지역 활성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첫째,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도서와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이동도서관이 도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면서 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문화적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이동도서관은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 문화

복지 향상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동도서관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면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자율주행, AI, IoT(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이동도서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7 지역의 문제해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도서관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공공장소로서, 지역주민과 활동가의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보관소를 넘어서, 리빙랩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 도서관이 커뮤니티 허브로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리빙랩은 지역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 사회 구성

이동도서관 서비스 사례

전국 최초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이하 카복이)은 정거장 세 곳에서 15분 동안 정차해 도서 대출·반납을 실시
위성항법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장애물 감지 라이다 센서를 장착해 장애물&사람을 감지하면 운행



성남시,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 '카복이'
(22년~)

2024년 의왕시 이동도서관 운영 안내

구분	일	시간	주요 서비스	주요 행사
10:00 ~ 11:00	월요일	10:00 ~ 11:00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의왕시 2024년 10월 10일 문화의날
	수요일	10:00 ~ 11:00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의왕시 2024년 10월 23일 문화의날
13:00 ~ 14:00	화요일	13:00 ~ 14:00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의왕시 2024년 10월 15일 문화의날
	목요일	13:00 ~ 14:00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의왕시 2024년 10월 24일 문화의날
14:30 ~ 15:30	수요일	14:30 ~ 15:30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의왕시 2024년 10월 23일 문화의날
	금요일	14:30 ~ 15:30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의왕시 2024년 10월 25일 문화의날
16:40 ~ 16:45	토요일	16:40 ~ 16:45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의왕시 2024년 10월 26일 문화의날
	일요일	16:40 ~ 16:45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의왕시 2024년 10월 27일 문화의날

의왕시 & (사)의왕시새마을회
<의왕시 이동도서관> 운영 안내

고양시이동도서관은 전국 최초 찾아가는 **트랜스포머형 이동도서관(책놀터)**을 개관
도서대출서비스 뿐만 아니라, **독서체험, 강연, 교육, 공연 등 종합적 도서관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야간서비스 진행



고양시 이동도서관 심야운영
(14년)

〈그림 4〉 이동도서관 서비스 사례

원이 협력하는 방식이다. 일본 농촌 리빙랩 사례에서는 고령화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리빙랩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은 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지역 재생과 회복을 위한 핵심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도서관이 정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동적 플랫폼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활동을 통해 단순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넘어서, 지역 재생과 문제 해결의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6.8 대응전략과 연구질문과의 연계성

본 절에서는 연구의 시작에 앞서 제기한 연구 질문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 연계하여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은 지역소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이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교육,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지역 특화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하며,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서관의 도시재생 역할은 어떻게 확

장될 수 있는가이다. 도서관은 도시재생의 중요한 축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폐교나 유휴 시설을 도서관으로 전환하거나,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일본 다케오 시립도서관처럼 도서관은 문화적 거점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자부심을 강화하며,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농어촌 지역에서 도서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이다.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동도서관,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자율주행 스마트 도서관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도서관이나 심야 이동도서관은 농어촌 주민들이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 등도 중요한 전략이다.

넷째, 도서관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이다. 도서관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전시회,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위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은 일과 여가를 결합하여 도시민들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무엇인가이다. 도서관은 지역사회 문화 중심지로서, 주

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지역 특화 문화 프로그램, 예술 전시, 지역 역사 보존 활동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 자원을 창출하며,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또한, 리빙랩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및 제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창립소장 임현진(2023) 교수는 인구 절벽에서 성장 절벽, 재정 절벽, 그리고 국가 절벽으로 이어지는 절벽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0년 내에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OECD는 예측하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세수는 감소하고, 복지, 교육, 국방, 산업 등 공공 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이 비기축통화국 기준으로 3대 부채국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인다. 절벽 시나리오에 따르면, 2300년 한국은 지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결혼 기피와 비혼 현상으로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세대의 결혼 기피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로 변화하면서 대도시 인구 감소, 중소도시의 청년 유출, 농촌 지역의 인구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이

지방 소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와 정책 자료에서 도서관이 지역 소멸 대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하였으며, 특히 도서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재생, 문화 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지방 소멸 대응 도서관 사례를 분석하여, 각 도서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접근성, 문화적 기여가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법률 및 정책 분석 결과, 도서관의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폐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으로는 도서관이 체류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위케이션 공간과 힐링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지방소멸 시대 공공도서관의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도서관은 접근성이 높고 융합적인 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폐교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건립을 통해 문화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문화적 복지를 지방에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관은 문화취약지역에서 공연, 강연,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방소멸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도서관은 독특한 도서관 여행 경험을 통해 방문자들에게 새로운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와 결합한 활동을 통해 관광과 일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령화 대응 및 외부인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특화 도서관을 구축하여, 이러한 도서관이 지역 브랜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동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여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이동도서관에 AI, VR, AR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하여 청

소년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도서관은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지역의 문제 해결 공간으로 기능하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소멸 시대 공공도서관의 역할 도출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심각한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시대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사서가 이 시대에 중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방소멸 지역에서의 도서관 운영 전략에 관한 연구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도서관 운영 방식이 지역 소멸을 막고 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율주행 도서관이나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이 지역 접근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기획재정부 (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출처: <https://www.moef.go.kr>
 김병수 (2023, 1. 31.). 소멸위기 도시를 살리는 해법, 도서관. 진북중앙.
 출처: <https://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030>

- 김신영, 차성중 (2022). 인구감소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인식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3), 95-117. <http://doi.org/10.16981/kliss.53.3.202209.95>
- 김인호 (2023). 다케오도서관의 교훈.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060292&memberNo=1130561>
- 노영희, 김경진, 김민서, 김사랑 (2024). 잊혀진 공간의 재탄생: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 정겨 문화예술자원총서, 23. 충주: 지식콘텐츠연구소 지역문화연구원.
- 민보경, 허종호, 이상직, 최지선, 이종혁 (2023).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이영희 (2023. 1. 2.). 무려 53만명이 찾은 '日콜로세움'...1445억 들인 도서관의 비밀. 중앙일보.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506>
- 이용훈 (2024. 5. 2.).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여는 공공도서관 역할을 기대. 한국독서교육신문.
출처: <https://www.reading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7>
-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18877호.
- 임현진 (2023. 4. 25.). 서기 2300년, 한국은 세계지도에서 사라진다... “이민은 필수”. 매일경제.
출처: https://snuac.snu.ac.kr/?page_id=34991&vid=113
- 정영호 (2023. 1. 19.). 소멸 위기 지방 살리는 日 도서관, 아르떼 매거진.
- 채지민 (2024. 5. 3.).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간의 가능성: 지역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활용. arte365. 출처: <https://arte365.kr/?p=103702>
- 채혜선 (2023. 5. 17.). “한국다운 것 버려라” ... 韓 인구소멸 경고했던 英교수의 팽폭. 중앙일보.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3225>
-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KOSIS): 2020~2070.
- 増田 寛也 (2014). 地方消滅 -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김정환 옮김 (2015). 지방소멸. 서울: 와이즈베리.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e, Hyeseon (2023, May 17). Abandon what makes Korea 'Korean' ... the British professor's warning on Korea's population decline. JoongAng Ilbo. Availabl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3225>
- Chae, Jimin (2024, May 3). Potential for community-based cultural and art spaces responding to local extinction: public libraries as regional cultural hubs. arte365. Available:

- <https://arte365.kr/?p=103702>
- Jung, Younghyo (2023, January 19). Libraries revitalizing local areas facing extinction in Japan. *Arte Magazine*.
- Kim, Byung-su (2023, January 31). Solutions to revitalize cities facing extinction: libraries. Jeonbuk Joongang. Available: <https://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030>
- Kim, Inho (2023). Lessons from Takeo library. Available: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060292&memberNo=1130561>
- Kim, Sin-Young & Cha, Sung-Jong (2022). A study on the users perception of public library services in depopulation areas: focusing on Uiseong-gu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3), 95-117. <http://doi.org/10.16981/kliss.53.3.202209.95>
- Lee, Yonghoon (2024, May 2). Public libraries' expected role in opening a successful local era. *Korean Reading Education News*. Available: <https://www.reading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7>
- Lee, Younghee (2023, January 2). The 'Japanese colosseum' visited by 530,000 people...the secret of the library built for 144.5 billion won. *JoongAng Ilbo*. Availabl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506>
- Lim, Hyunjin (2023, April 25). By the year 2300, Korea will disappear from the world map... 'immigration is essential'. *Maeil Business Newspaper*. Available: https://snuac.snu.ac.kr/?page_id=34991&vid=113
- Min, Bokyung, Heo, Jongho, Lee, Sangjik, Choi, Jiseon, & Lee, Jonghyuk (2023). *Future Strategies for Regions Facing Population Crisis*. Seoul: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1). *Impacts and response directions of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Available: <https://www.moef.go.kr>
- Noh, Younghee, Kim, Kyungjin, Kim, Minseo, & Kim, Sarang (2024). *Rebirth of Forgotten Spaces: Community Innovation through Reuse of Closed Schools*. *Jingyeo Culture and Arts Resource Series*, 23. Chungju: Knowledge Contents Research Institute for Regional Culture Studies.
-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Act No. 18877.
- Statistics Korea (2023). *Population Projections (KOSIS): 2020-2070*.

